

호두 안정, 아몬드 20% 이상 인상 예상 5대 수입 견과류 올 시장 전망...업체들 품목 다변화에 사활

요즘 세계 견과류 시장의 공통적 특징은 바로 수요의 대폭 증가. 호두, 아몬드 등 일부 품목에만 집중을 보이던 수요가 점차 그 품목을 다양화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을 부르는 법. 견과류의 시장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국내 견과류 수입업체들은 자연 제과점 시장을 위한 소량 포장 제품 판매, 품목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캐슈넛 등 5대 수입 견과류의 가격, 수급량을 포함한 시장 동향과 국내 수입공급업체들의 전략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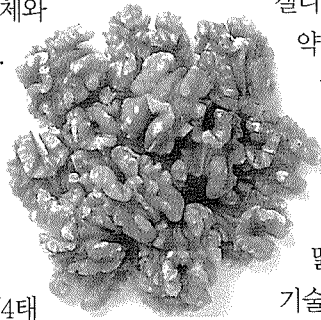
〈취재·김미선〉

■ 호두

국내 제과시장에서 호두의 소비는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에는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의 추세로 보아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호두 소비의 증가세에는 자연 증가율에 가세해 관련 업체와 단체의 마케팅 활동의 영향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호두제품경연대회,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판촉에 힘입어 호두가 제과 제품 고급화에 적합한 소재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잡으면서 호두 제품 품목이 매우 다양화됐고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제과점 또한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호두 소비 패턴은 크게 분태와 1/4태 2가지로 양분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1/4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작업성이 좋고 경제성이 뛰어난 호두 분태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요즘 들어 일부 고급 상권의 제과점들을 중심으로 분태에 대한 소비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서울 신사동의 한 제과점주는 “고객들에게 호두 제품임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다른 점포와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호두식빵 제조에 분태를 고집하는데 고객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분태 사용의 이유를 밝혔다.

호두는 원래 코드린 나방이라는 식물 병충해 요소로 인해 국내 수입이 금지되던 품목이었다가 지난 94년 훈증, 진공 포장 등 각종 검역 기준에 맞는 미국산 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됐다. 따라서 현재 재래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호두의 경우 산패 가능성과 위생 상태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내국 거래로 취급되어 검



역을 생략하는 북한산 호두의 대부분도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견과류 취급 업체 관계자들은 “재료비 몇 푼 아끼려다 대고객 이미지 실추는 물론 위생 검열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캘리포니아 현지에서의 올해 호두 작황은 전년 대비 약 10% 가량 증산될 것으로 보여 호두 시장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미미하거나 제로에 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호두 분말의 국내 시장 도입 또한 기대된다. 뽕은맛을 지닌 속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숙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과 부문에서 아몬드 파우더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재료로 가치를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내 호두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는 (주)다림 너츠빌의 유한규 대표는 “호두 분말은 제과의 많은 부분에 손쉽게 접목시킬 수 있고 점포의 제품 차별화에 매우 적절한 재료”라 밝히며 앞으로 호두 파우더 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 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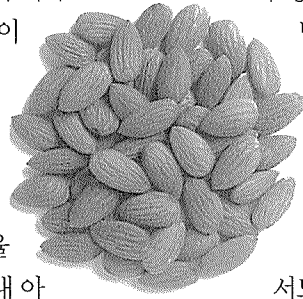
아몬드는 밀가루와 설탕 만큼이나 제과에서 사용 비중이 커 이미 주재료에 속하는 재료이다. 따라서 아몬드의 시장 가격 인상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몬드의 경우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가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수요 증가세가 공급 물량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몬드 국제 시장의 일반적 추세다. 그나마 올 9월 수확을

앞두고 있는 현지의 작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해 15% 이상 감산을 예상하고 있던 분위기에서 8% 물량 감소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율 급등 등의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물량 선점을 통해 시장 가격상승을 억제해 왔던 국내 아몬드 수입 업체들도 지난 5월부터 속속 가격 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몬드의 국내 도매가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미 작년 동기 대비 30% 가량 상승 조정된 상태다. 다행인 것은 국내 아몬드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몬드 파우더의 경우 여러 품목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인 20% 상승에 그쳤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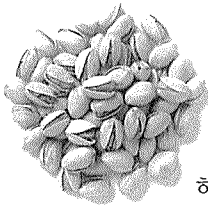
국내 아몬드 수입업체 중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주)길림양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아몬드 소비 패턴은 아몬드 파우더가 50%, 슬라이스 아몬드가 40%, 백 슬라이스가 10% 정도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백 슬라이스의 경우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아몬드를 슬라이스한 것으로 기존의 껍질 있는 슬라이스 아몬드와 비교해 1kg당



5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만 제품 차별화를 원하는 일부 고급 제과점을 중심으로 그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몬드 국내 시장의 경우 현지 작황에 따라 해마다 물동량의 변동이 매우 크지만 업체별 가격 경쟁이 치열해 시장 가격이 안정돼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각 업체들은 이제 지나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보다 다변화한 품목을 선보여 업체별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통 아몬드, 슬라이스 아몬드 등 기존 제품의 보급에 주력했던 것에서 탈피해 독특한 모양의 슬라이스 아몬드, 분태, 페이스트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과업계에서도 새로운 제품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부터 보이던 것에서 벗어나 슬라이스 아몬드는 데코레이션용으로, 아몬드 분태는 땅콩 분태를 대체해 제품 고급화를 꾀할 방편의 하나로 미미하게나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이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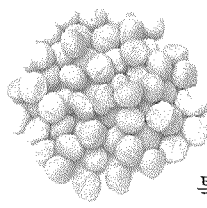
■ 피스타치오



국내에서 페이스트와 데코레이션용으로 주로 쓰이는 피스타치오는 여러 견과류 중 해 갈이가 가장 심한 작물이다. 나무 자체의 특성상 풍작과 흉작을 1년 주기로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 피스타치오의 올해 미국 현지 판매는 흉년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다행히 이에 따른 피스타치오 가격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스타치오가 대풍(大豊)을 이뤘던 전년도 수확량의 이월 물량이 아직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흉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스타치오의 경우 아직 국내 수요가 미미해 가격에 따른 수요 변동량에 수입 업체들로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는 국내 제과 업계에서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견과류 중 하나다.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고급 토핑용으로 막 부각되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국내 시장 성장이 벽에 부딪히게 됐다. 마카다미아의 국제 시장 가격이 급격히 치솟고 있기 때문. 이는 마카다미아의 주 생산국 호주가 100년 이래 최고의 가뭄을 겪으면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미 호주산 마카다미아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년 대비 30% 인상된 가격에 국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1kg당 1만 7,500원~1만 8,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이미 2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반입 물량 또한 턱없이 부족해 시장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주)길림양행 조성욱 차장은 “마카다미아의 경우 워낙 고가 재료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을 빚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해도 제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땅콩 등 저가 재료로의 회기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럴 때일수록 점포 차별화를 위해 더 좋은 재료를 찾는다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 캐슈넛



국내 시장에서 안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캐슈넛은 아직 제과용으로의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코레이션용으로 참신한 견과류를 찾고 있는 일부 젊은 제과인들에 의해 국내 제과업계에 조금씩 입소문이 번지고 있다.

각 견과류별 올해 가격 예상

호두 ▶ 전년 대비 10% 증산 예상 - 수요 대폭 증가로 소폭 인하 예상

피스타치오 ▶ 흉작 - 전년도 이월 물량 충분, 보합세 예상

아몬드 ▶ 전년 대비 8% 감소 예상 - 수요 대폭 증가로 품목별 20% 이상 상승

마카다미아 ▶ 국제 공급 중단 상태 - 30% 이상 인상 예상